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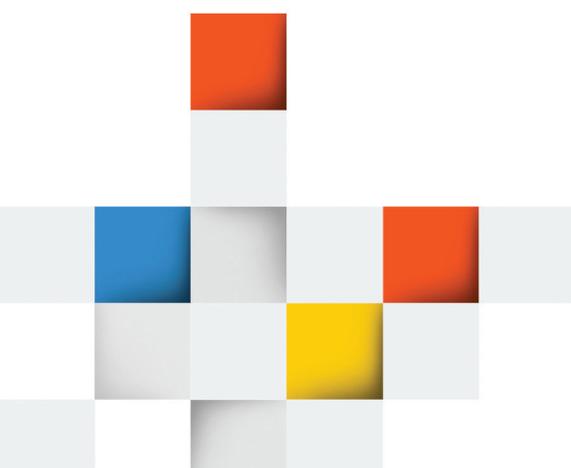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고, 특히 남녀 모두 2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대에서 여성은 40대에서 비활동률 증가폭이 가장 컸다. 비활동률은 20대와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감정 중에서 '외로움'은 증가하였으나 '자살 생각'과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느낌'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5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외로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자살 생각' 비율도 가장 높다.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각각 모두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도움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극단적 주관적 고립상태에 인구도 증가하였다.
-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행복감, 걱정, 우울, 유대모니아)은 코로나 전후의 차이보다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관적 웰빙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관적 사회적 고립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고립 또는 사회적 단절(social disconnectedness)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의 정도로 정의된다. 주관적 사회적 고립 또는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은 물리적인 분리와 관계없이 외로움, 사회적 지지 결핍,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Cornwell & Waite, 2009). 개인이 타인과 교류가 많고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등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개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사회적 고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코로나19 전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본다.<sup>1)</sup>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고립 요소들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건강, 행복감, 삶의 질, 주관적 웰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인 단절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질적인 평가가 반영된 주

1) 이 글에서 사용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만 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 2020년 자료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70대 이상 연령집단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2020년 자료와 이전 연도 자료를 직접 시계열 비교하기 어려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사회적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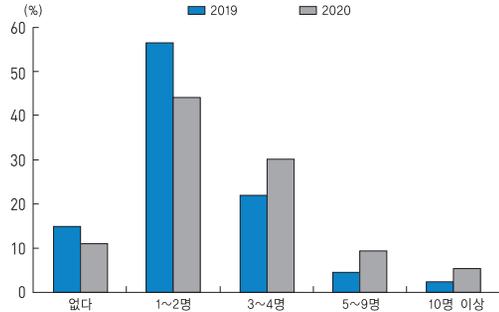
객관적 사회적 고립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사회적 교류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교류 빈도와 사회단체 참여를 객관적 사회적 고립의 요소로 살펴본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그 밖의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했는가를 질문한다. [그림 XIII-19]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가 없다는 응답과 1-2명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10.9%, 44.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각각 4.0%p, 1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4명, 5-9명,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대비 각각 8.2%p, 4.9%p, 3.2%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의 교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없다는 응답이 1.4%p 증가하고, 1-2명, 3-4명이라는 응답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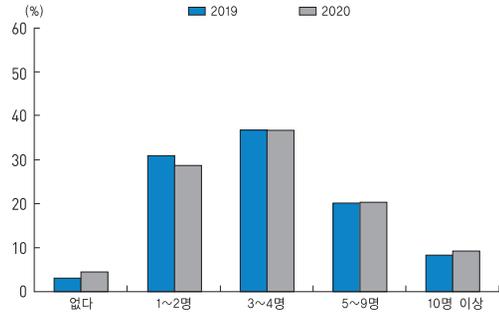
객관적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인 한 형태는 가족 또는 친척, 혹은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2019년에 1.7%에서 2020년 2.2%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XIII-20]은 이를 성 및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2020년에 없다고 응답한 비

[그림 XIII-19] 사회적 교류 빈도, 2019, 2020

1) 가족 또는 친척



2) 가족 또는 친척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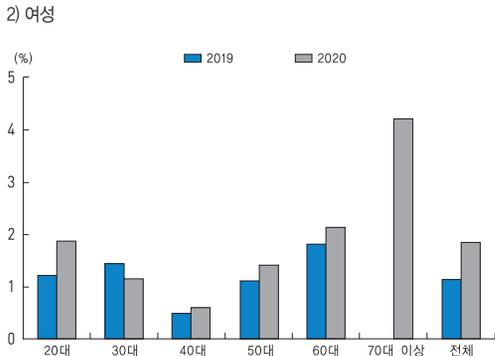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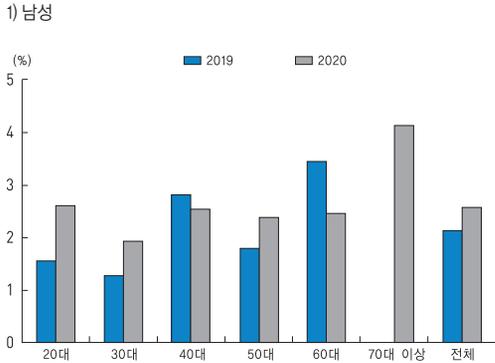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서 접촉이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함. 가족 또는 친척의 경우 동거자는 제외되며 가족 또는 친척 외의 사람의 경우 업무상 접촉은 제외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율은 남성이 2.6%, 여성이 1.9%로 2019년에 비해 각각 0.5%p, 0.7%p 증가했다. 자료 특성상 직접 비교가 어려운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남녀 모두 20대에서 교류가 없다는 응답 비율의 증가 폭이 컸다. 남성의 경우 40대와 6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그림 XII-20]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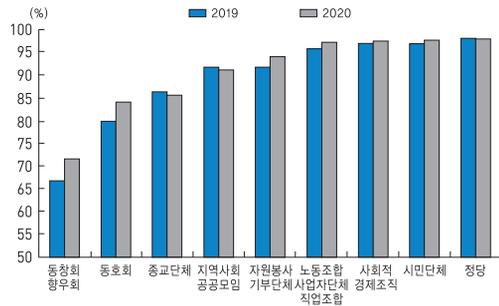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족 또는 친척', '가족 또는 친척 외' 두 문항에서 모두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70대 이상에서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객관적 사회적 고립 정도는 사회단체 참여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XII-21]은 여러 사회단체에 회원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은 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종교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정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 유형에서 비활동률이 증가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 참여유형인 동창회/향우회의 경우 비활동률이 2019년 66.8%에서 2020년 71.6%로 4.8%p 증가해 사회단체 활동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여가, 문화 등 동호회의 비활동률도 79.8%에서 84.0%로 4.2%p 증가해 동창회/향우회 다음으로 활동이 크게 줄었다.

[그림 XII-21] 사회단체 유형별 비활동률,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 비활동은 각 사회단체 유형별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비율의 합이며, 사회단체 활동은 '가끔 활동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비율의 합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반면, 종교단체와 지역사회 공공모임의 경우 비활동률이 2019년 대비 각각 0.8%p, 0.6%p 감소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의 경우도 비활동률이 0.2%p 증가해 활동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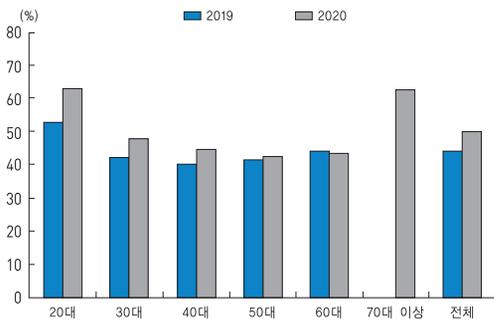
[그림 XII-22]는 코로나19 전후로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모든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44.0%, 2020년 49.8%로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2019년 52.4%, 2020년 57.4%로 4.9%p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사회단체 비활동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남성의

사회단체 비활동률 증가폭이 더 컸다. 남녀 모두 20대와 70대 이상의 비활동률이 높았으며, 자료 특성상 직접 비교가 어려운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남성은 20대에서 증가폭이 컸으며(10.1%p 증가), 여성은 4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6.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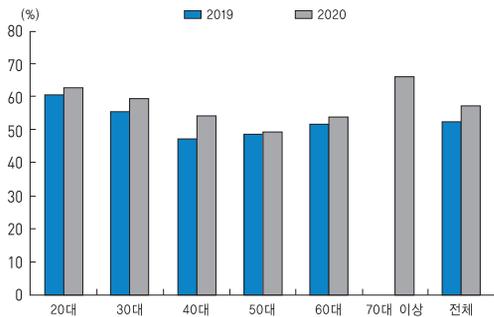
지금까지 객관적 사회적 고립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20대 청년층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2]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2019, 2020

1) 남성



2) 여성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9가지의 모든 사회단체 유형에 현재 소속되지 않았거나, 소속되었더라도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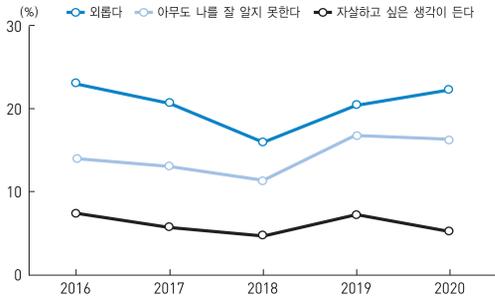
### 주관적 사회적 고립

주관적 사회적 고립 또는 인지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 인지된 사회적 지지(support) 정도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매년 ‘외로움’, ‘자살 생각’,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과 같은 부정적 감정 경험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다. [그림 XIII-23]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추이를 보면, 세 가지 부정적 감정 경험 모두 2018년을 최저점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로 2019년에 비해 1.8%p 증가한 반면,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과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각각 16.3%, 5.2%로 2019년 대비 0.5%p,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XII-23] 부정적 감정 경험 추이,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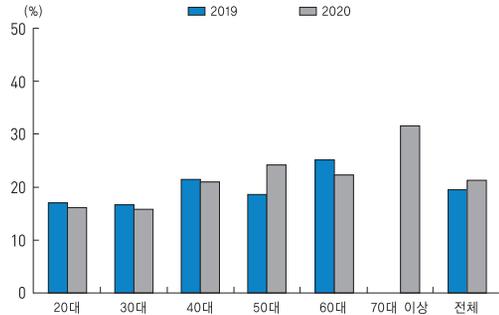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정적 감정 경험은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등 각각의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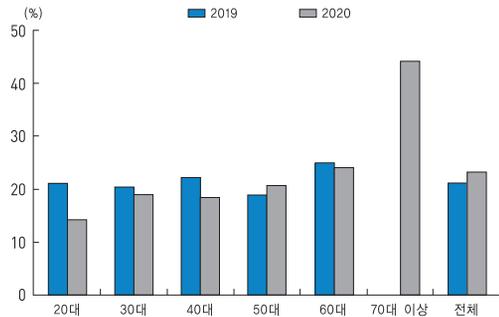
[그림 XII-24]는 성 및 연령대별로 외롭다고 느낀 응답자 비율을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019년 19.6%에서 2020년 21.2%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도 21.5%에서 23.4%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모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감소한 데 반해 50대에서는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자료상 70대 이상의 변화를 살펴볼 순 없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대의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코로나19 발생 이후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4] 성 및 연령대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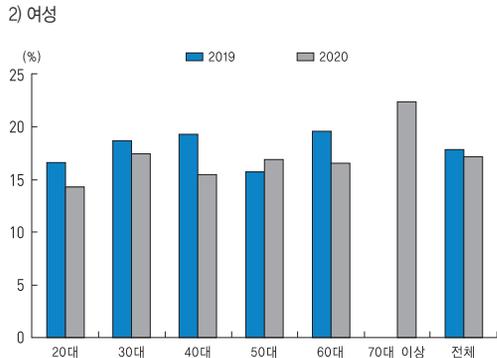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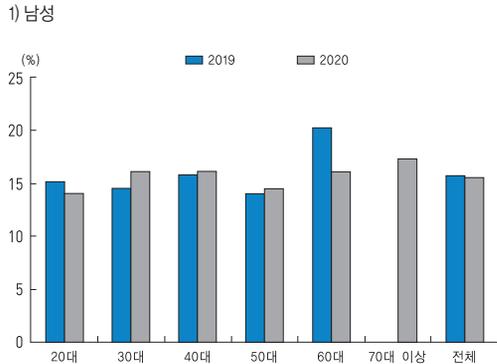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나는 외롭다"라는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25]는 성 및 연령대별로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 응답자의 비율을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외로움과 다르게 남녀 모두 2019년에 비해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와 60대는 감소한 반면 30-50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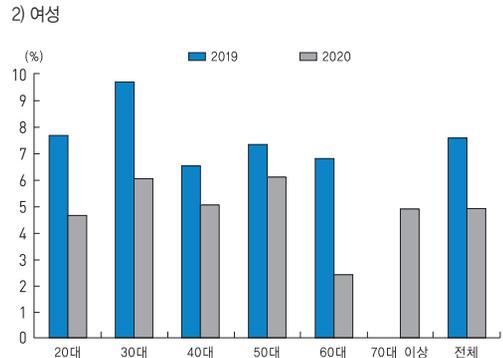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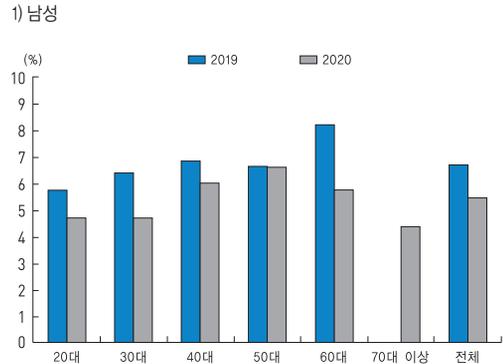


[그림 XII-25] 성 및 연령대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26] 성 및 연령대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나 50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고령층 또한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XII-26]은 성 및 연령대별로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응답자 비율을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자살 생각 비율도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2019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1.2%p 감소)에 비해 여성(2.6%p)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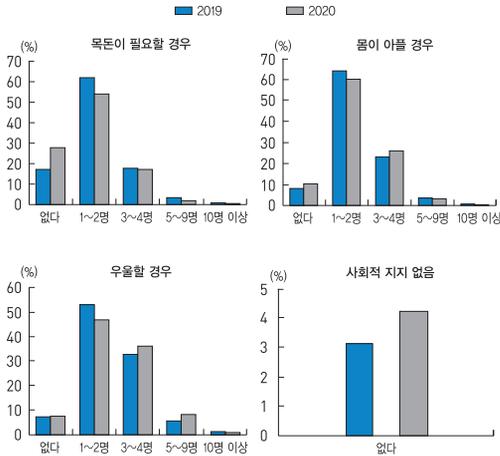
감소폭이 더 컸다.

지금까지 부정적 감정 경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특히 50대가 외로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감정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7]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



[그림 XII-27] 사회적 지지 수준,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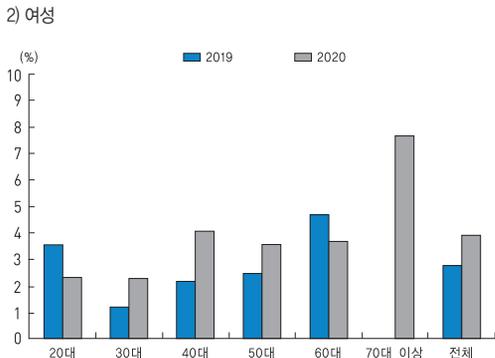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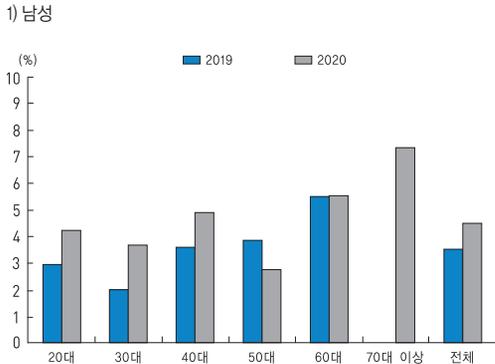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지지 없음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의 세 문항에서 모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한 사람들의 수를 묻는 질문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대해 2019년에는 응답자의 83.0%, 2020년에는 72.6%가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역으로 보면, 2019년에는 17.0%, 2020년에는 10.5%p 증가한 27.4%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

답한 비율은 2019년 8.2%에서 2020년 10.5%로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된 항목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 항목에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019년 7.2%에서 2020년 7.6%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움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019년 3.1%에서 2020년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극단적인 주관적 고립상태에 놓인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8]은 [그림 XII-27]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세 영역에서 모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성 및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없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료상 직접 비교가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층과 없다는 비율이 감소한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지지가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30대는 2019년 2.0%에서 2020년 3.7%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은 20대 1.3%p, 60대 1.0%p 감소한 반면, 30~50대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1.1~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4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층과 중년층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8]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비율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의 세 문항에서 모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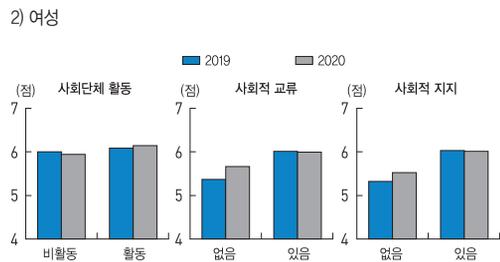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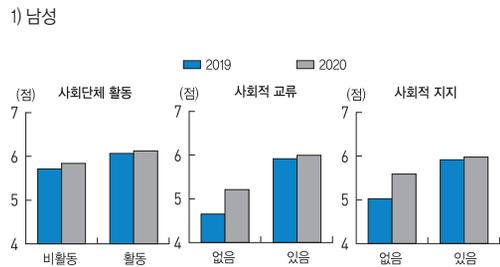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 삶의 의미와 가치(유데모니아), 긍정 및 부정적 정서 경험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조사된다.

[그림 XII-29]부터 [그림 XII-32]는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각 요소들과 주관적 웰빙의 세 차원과의 관계를 코로나19 전후, 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요소 중 주관적 웰빙의 긍정 정서(행복감) 및 부정 정서(걱정, 우울)와 상관관계가 높은 외로움,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 자살 생각은 제외하였다.

[그림 XII-29]에서 사회적 고립 여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보면, 2019년과 2020년을 통틀어 집단 간 0.22-0.97점의 차이가 난다.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5.7-6.0점 사이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고려할

[그림 XII-29]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요즘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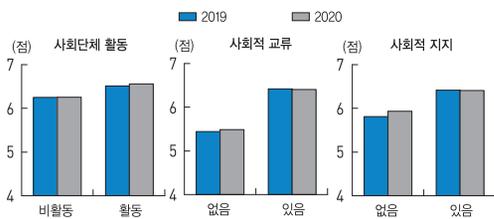


때,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라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고, 사회적 교류와 지지가 없는 집단 모두 삶의 만족도 상승 폭(0.56점)이 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사회적 고립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성만큼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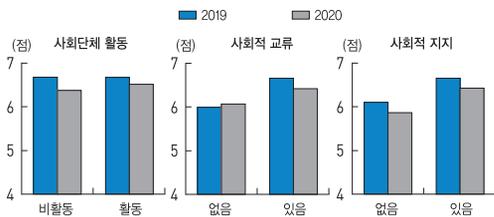
[그림 XII-30]에서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남성은 행복감이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감소

[그림 XII-30]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행복감, 2019, 202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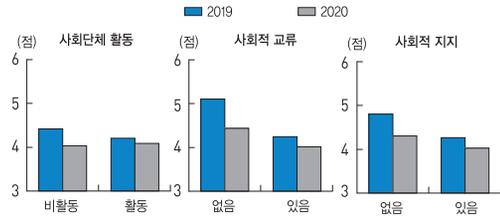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매우 행복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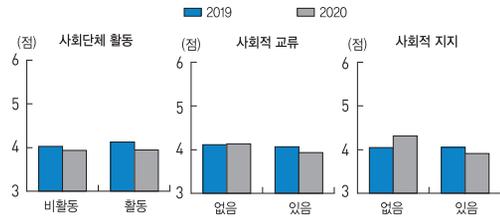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31]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부정 정서, 2019, 2020

1) 걱정: 남성



2) 걱정: 여성



3) 우울감: 남성



4) 우울감: 여성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걱정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0점)-매우 걱정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3) 우울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에 대해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점)-매우 우울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컸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단체 활동이 있는 집단과 사회적 교류 및 사회적 지지가 없는 집단에서 행복감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지지 및 교류 여부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컸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행복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II-31]에서는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걱정과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먼저 걱정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모든 집단에서 걱정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라 걱정 수준에 집단 간 차이가 컸다. 반면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가 없는 집단과 사회적 교류가 없는 집단에서 걱정 수준이 상승했으며, 사회적 지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걱정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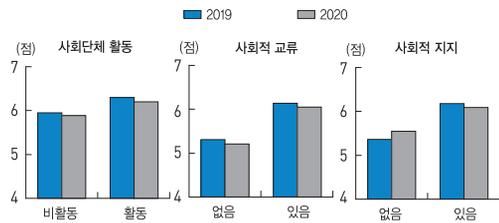
다음으로 우울감을 보면, 남성의 경우 걱정 수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모든 집단에서 우울감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지지 및 교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우울감 차이가 컸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집단과 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집단에서 우울감이 소폭 상승했다.

[그림 XII-32]는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유데모니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유데모니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남녀 모두 6.2점에서 ±0.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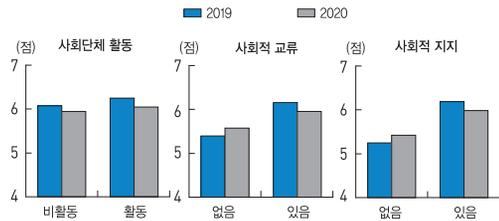
정도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라 남성의 경우 0.31-0.86점, 여성은 0.10-0.96점까지 편차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유데모니아 점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적 지지가 없는 집단의 경우는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컸다. 반면 여성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유데모니아 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또한 사회적 지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컸다.

[그림 XII-32]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유데모니아, 2019, 2020

1) 남성



2) 여성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유데모니아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매우 가치 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